



大倫同窓會報



발행인 : 이만석 / 편집위원 : 채중해 류봉현 은동렬 성병철 / 제작 : 대륜동창회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700 (대륜고등학교 내) / TEL. 053-751-0315

동창회장 주최 대륜가족 초청의 밤 모두가 한마음이 된 아름다운 팔공산의 밤



지난 6월 5일 저녁 7시 이만석 동창회장의 주최로 대한수목원에서 대륜가족 초청의 밤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행사를 마치고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며 동문들의 뜨거운 정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만석 제 12대 동창회장님 초청으로 지난 6월5일 대한수목원에서 140여명의 동창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륜가족의 밤이 성대히 열려 팔공산 아름다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50회 류봉현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간단한 개회 행사와 더불어 광석근 명예회장님께서 명패와 집무 시 사진 전담식을 가져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이만석회장의 인사말을 통해 동창 여러분들에 대한 애뜻한 정과 동창회관건립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부 행사에 앞서 동창 원로님들의 기개 있는 건배사를 통해 대륜의 힘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번 19대에 국회에 입성한 49회 이완영동문과 비록 낙선하였지만 대륜의 저력과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49회 임대운, 51회 서영득동문도 건배사를 통해 초청동문들의 따뜻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별빛과 맑은 공기 속에 58회 안명환 동문의 열정적인 색소폰연주로 팔공산을 대륜동창들의 뜨거운 박수와 감탄으로 뒤덮었습니다.

동창들에 대한 애뜻한 정과

동창회관건립에 관한 확고한 의지 재확인

이어진 38회 김기돈 선배님의 원숙한 색소폰, 57회 양성필 동문의 화려한 대금 연주는 그야말로 명품 대륜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준, 우리 대륜가족만 느끼고 즐기기에 가까운 멋진 무대였습니다.

이어진 초대가수 윤차옥님의 흥겨운 민요와 창, 끼 많은 59회 김봉석 동창의 사회로 동창분들의 장기자랑이 이어졌고 소중한 장소를

제공해주신 38회 배만현 고문님의 19금 Y담을 통해 분위기는 더욱 더 달아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약수와 동창 선후배간 뜨거운 포옹과 사진촬영으로 초청의 밤 행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또한 불원천리 길을 동창들에게 맛보이시겠다고 대중교통편으로 부산막걸리를 양손에 들고 참석해주신 재부 손대익회장님(40회)과 최갑송(46회)사무국장님, 그리고 재울산 반용학회장님(46회)과 성기표총무님(50회), 재구미 김승수 회장님(51회)을 비롯한 재외지부 동문님들을 통해 뜨거운 동문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동창들을 초청하신 이만석회장과 동창 행사에 항상 거리낌 없이 장소를 제공해주시는 배만현 고문님, 행사 때마다 열정으로 참석하시는 원로님들과 선후배님 모두가 서로 감사의 마음으로 포옹했던 아름다운 6월의 밤이었습니다. 은동렬 (58회)



말은바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이만석 대륜동창회장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믿음직한 후배동문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우선 지면을 통해서 동문여러분들의 근황과 문안을 여쭙고, 무엇보다 하시는 일이 萬事如意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동창회관건립에 對한 보고를 먼저 드려야 겠기에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많은 物件을 보아왔습니다만 한마디로 건립추진위에 의뢰할 만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타 부동산 전문가인 몇몇 동문들의 고견인즉 서두르지 말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켜보면 찬스가 올 것입니다 라는 공통의견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륜동문 여러분! 후배 동문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말은바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인의 성공이요 대륜의 성공이며 크게는 國家의 成功인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초에 임원들의 만남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는 만남으로 이루어진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필요할 때 꼭 그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무더운 盛夏之節에 건강에 유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창회비 및 분담금 대구은행 062-10-005715 대륜동창회 납부확인_동창회홈페이지
납부계좌안내 농협 351-0166-3854-93 대륜동창회 www.daeryun.or.kr
연회비 20,000원, 납부 시 이름, 통합기수를 꼭 기재 해 주십시오.

2012년 정기총회



2012년 1월 30일 제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광성근회장님의 “동창회관 건립을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의 말씀과 “대륜동창회의 위상을 드높이지 못하였다”는 겸양의 말씀으로 대회를 하신 후 신임 이만석회장님에게 “무거운 짐을 맡겨 송구하다”며 동창회기를 전달하시고 제12대 동창회장으로 취임하심을 축하하였다.

신임 이만석회장님께서서는 “첫째, 동창회원 모두의 숙원인 동창회관 건립을 반드시 임기 내에 이루겠다. 둘째, 임기 내 장학재단 건립을 통해 대륜의 위상을 한층 더 높

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취임 일성으로 내세워 참석한 400여 동창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 최종수(TBC 정치행정부장)53회 동문의 사회로 이만석회장님의 제12대 동창회장 선출, 채종해 신임 사무총장선출, 허원구, 이규복 동문의 감사 선임과 동창회칙 개정, 2011년 결산 및 2012년 예산안을 가결 시켰다.

이어진 동문들로 구성된 “必 so good”의 퓨전 국악공연, 아미치컴퍼니의 성악 5중주, KMI의 댄스 공연과 수성필소사이어티의 현악 4중주로 회의장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류봉현 (5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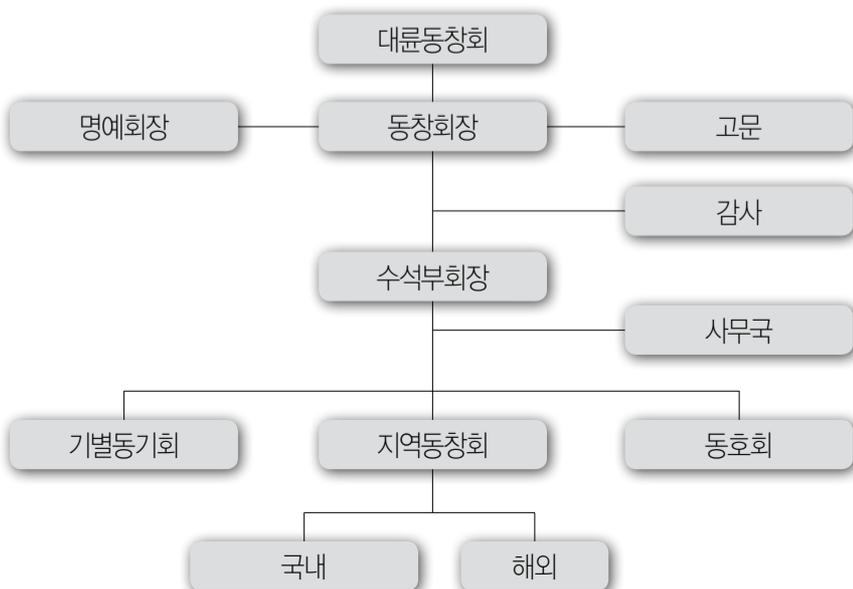
2012 대륜동창회 회장단

- ▶ 회 장 : 이만석 40회
- ▶ 명예회장 : 광성근 39회
- ▶ 고 문 : 이만섭 23회, 이성구 25회, 이우각 26회, 박영희 32회, 배만현 38회
- ▶ 감 사 : 허원구 42회, 이규복 50회 ▶ 사무총장 : 채종해 47회
- ▶ 부회장 : 안준목 40회, 정희홍 40회, 최봉영 40회, 임관식 40회, 김성관 40회, 김영진 40회, 이동건 41회, 임현철 41회, 지용철 42회, 마영진 42회, 박명수 43회, 양성근 43회, 이호성 44회, 김석기 44회, 이동훈 45회, 권오광 45회, 권정태 45회, 강재형 45회, 이종연 46회, 하성해 46회, 신영철 46회, 김달희 47회, 한명준 47회, 이종규 47회, 이상훈 48회, 배인호 48회, 김명환 49회, 박병석 49회, 김성조 49회, 유승민 49회, 김형렬 50회, 오철환 50회, 이준우 50회, 김용범 50회, 김원구 51회, 서영득 51회, 강주열 52회, 변성렬 52회, 김현락 53회, 전철수 53회, 박성도 54회, 신현호 54회, 임대우 54회, 서시교 55회, 송준호 55회, 소재원 56회, 이창연 56회, 김성일 57회, 백남진 57회, 김정학 58회, 김학수 58회, 권준혁 59회
- ▶ 이사 : 정원용 태백, 이갑상 중1회, 정세화 중3회, 임노섭 중3회, 이상수 중4회, 권점수 중4회, 정우석 중5회, 강신달 중5회, 정하상 중6회, 이태원 중6회, 정석교 25회, 장영목 26회, 김진목 26회, 박달수 27회, 백인호 27회, 김광선 28회, 장만재 28회, 신호식 29회, 홍진표 29회, 조우호 30회, 김영일 30회, 한달석 30회, 이상배 31회, 권준하 31회, 이희운 32회, 박영복 32회, 최영태 33회, 신성식 33회, 황용근 34회, 서용웅 34회, 양광웅 35회, 이영환 35회, 최연호 36회, 박진일 36회, 이정수 37회, 이덕영 37회, 이명규 38회, 이상백 38회, 김양태 39회, 이수형 39회, 김용규 40회, 김성근 40회, 김홍수 41회, 이상훈 41회, 김해성 42회, 정세유 42회, 박승욱 43회, 김종덕 43회, 손우현 44회, 강경현 44회, 김규진 45회, 김종건 45회, 김봉준 46회, 전규석 46회, 황진성 47회, 김병용 47회, 황대면 48회, 배근국 48회, 은순욱 49회, 채학수 49회, 양동업 50회, 전상수 50회, 서원형 50회, 최준태 51회, 정화중 51회, 김수진 52회, 김호권 53회, 이만기 53회, 박성도 54회, 최준만 54회, 송준호 55회, 박상봉 55회, 황윤선 55회, 권영태 56회, 안대성 56회, 신호철 57회, 김정백 57회, 김학수 58회, 박진석 58회, 권준혁 59회, 손정익 59회, 심재호 59회, 박석주 60회, 주흥우 60회, 박성철 61회, 김병규 61회, 나승찬 62회, 손재영 62회, 김민태 63회, 전대건 63회, 안진수 64회, 김문환 64회, 장근창 65회, 김현수 65회, 정병철 66회, 석창엽 66회, 이준엽 66회, 송경호 67회, 최상준 67회, 오기원 68회, 설대환 68회
- ▶ 사무국 : 총무이사 류봉현 50회, 은동렬 58회, 조직이사 정화중 51회, 김수진 52회, 홍보이사 여혁구 60회, 성병철 65회, 체육이사 박상봉 55회, 심재호 59회, 재무이사 이창무 60회

지역별 회장 총무 명단

재 경 회장	정희홍 40	재상주 총무	조현영 55	재경산 총무	손관수 57
재 경 처장	김택유 50	재문경 회장	정영철 40	마 창 진 회장	안병수 45
재포항 회장	박성관 45	재문경 총무	권대성 57	마 창 진 총무	김태진 53
재포항 국장	이학희 53	강북셋별 회장	허홍렬 52	재일산 회장	임운봉 24
재포항 총무	최인찬 55	강북셋별 총무	이성오 55	재인천,부천 회장	강대욱 53
재구미 회장	김성수 51	성서셋별 회장	박광노 48	재고양 회장	박홍범 44
재구미 국장	임대우 54	성서셋별 총무	소재원 56	재고양 총무	김현수 49
재구미 총무	이수호 62	체륜회 회장	강주열 52	재인동 회장	이철우 49
재부산 회장	손대익 40	체륜회 총무	김수진 52	재인동 총무	권영백 58
재부산 국장	최갑송 46	셋별회 회장	박병찬 31	재청송 회장	조국래 39
재울산 회장	반용학 46	셋별회 총무	김수진 52	재청송 총무	심상원 52
재울산 총무	성기표 50	팔공회장	허진영 50	재남가주 회장	서재두 46
재대전 회장	김목호 42	팔공회 총무	권상택 52	재뉴욕회장	홍태명
재대전 총무	배재희 59	재영주 총무	이상근 47	재인도네시아 회장	이진수
재상주 회장	서유택 44	재경산 회장	전철수 53	재인도네시아 부회장	유충희

2012 대륜동창회 조직도



제35호 셋별문화 원고모집

- 셋별 문예**
시, 수필, 독서 산책, 기행문 "국내, 해외, 사진포함"
- “眞品 大倫人”**
그때 그 시절(한 장의 사진(고교시절)에 얽힌 추억담) 이 사람이 진품이다 (칭찬/자랑하고픈 동기, 선·후배) 내가 본 大倫人 (외부인이 바라본 대륜인)
- 특집기사**
동창회 사무국 및 주관기 선정 특집기사

문의, 주관기 053-762-3559 / 동창회 053-751-0315

2012년 8월 31일까지 E-mail. 8043477@naver.com

2011 결산안

수 입	
항 목	금 액
회장단년회비	20,500,000
각기별분담금	9,600,000
이사회비	4,000,000
체육대회참가비	3,800,000
셋별문화광고비	10,000,000
지로년회비	18,061,230
졸업생입회비(고)	3,948,000
졸업생입회비(중)	3,540,000
잡수익	1,610,000
정기예금이자	47,320,004
전년이월금	16,538,500
합계	138,917,734
지 출	
항 목	금 액
사무국장급여	12,000,000
사무실장급여	8,400,000
교통비 및 활동비	7,200,000
상여금	2,550,000
사무국운영비	3,600,000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13,466,900
이사회의비(2회)	1,918,000
자문회의비	1,000,000
장학금 및 체육후원회비	16,000,000
장기근속 및 개교기념 지원비	4,310,000
해외여행 경비 및 축구부 지원	4,100,000
행정실 및 교내총무 지원	680,000
현수막 및 소모품	4,340,660
회환	5,100,000
우편 및 통신비	2,362,490
접대비	2,545,900
체육대회 경비	8,315,600
지로작업비	4,979,810
홈페이지운영비	2,000,000
잡지출	2,194,900
합계	107,064,260
2012년도 이월금	31,853,474

2012 동창회칙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1. 정 회 원: 교남, 대륜, 대륜중, 대륜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수료자	제3조1. 정 회 원: 교남, 대륜, 대륜중, 대륜고등학교의 졸업자 및 수료자 및 각 학교에 재학하였던 자로서 본회에 가입을 희망 하는 자 중에서 각동기회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임원의 정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단 정회원이 아니면 임원이 될 수 없다. 1. 고문 : 약간 인 2. 자문위원 : 약간 인 3. 회장 : 1 인 4. 부 회 장 : 50인 이내 5. 감사 : 2 인 6. 사무국장 : 1 인 7. 간사 : 2 인	제6조 (임원의 정수)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단 정회원이 아니면 임원이 될 수 없다. 1. 고문 : 약간 인 2. 명예회장 : 1 인 3. 회장 : 1 인 4. 부 회 장 : 50인 이내 5. 감사 : 2 인 6. 사무총장 : 1 인
제7조 (임원의 선출) 2. 자문위원은 모교재직회원이 호선한다. 3. 회장, 부회장 및 감사 2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고 감사 중 1인은 자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재경 및 각 지부 동창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4.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단 3인 이상의 재정 보증을 받아야 한다. 5. 간사 중 2인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한다. 간사중 1인은 자문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1. 고문은 인격과 덕망을 겸비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다. 2. 명예회장은 직전 동창회장이 된다. 3. 회장, 부회장 및 감사 2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재경 및 각 지부 동창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4.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이사의 정수와 선출) 1. 이사의 정수는 기별회장을 포함한 각 기별 3인 으로 한다. 2. 이사는 기별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8조 (이사의 정수와 선출) 1. 이사의 정수는 각 동기회의 당해년도 회장, 총무 2인으로 한다.
제1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2. 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나) 상임이사는 기별회장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상임이사회는 임원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그러나 의결권은 회 장 단 및 상임이사가 가진다. 3. 나) 임시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또는 상임이사 각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각 이를 소집하고 제 1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2. 가)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운영위원은 임원 및 이사 중 회장이 10인 이내에서 위촉한다. 3. 나)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각 이를 소집하고 제1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할 수 있다. 라) 회의는 회일 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동창회비는 동창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회비 20,000원, 납부 시 이름, 통합기수를 꼭 기재 해 주십시오.

들어오면 다 있다!!

<http://www.daeryun.or.kr>

대륜동창회 홈페이지

프레스, 리벳팅 머신, 인덱스 테이블의 만남

기술연구소 INNOBIZ
TUV ISO 9001-14001

실용신안 등록
· 등록 제 029249호 (유압역상 프레스)
· 등록 제 033915호 (복용형 반드세 기판 및 밀링형 전선의 상형장치)
· 등록 제 0360402호 (밀링형 반드세 기판 및 밀링형 전선 제조장치)

의장 등록
· 등록 제 0334782호 (유압역상 프레스)
· 등록 제 0344495호 (밀링형 전선 제조장치)

유압 탁상 PRESS 10, 15, 20TON
형번 HHP-10, 15, 20

공압 INDEX TABLE Ø300
형번 HAIT-300

유압 탁상 PRESS 30TON
형번 HHP-30

AIR PRESS 유압 탁상 PRESS 공압 RIVETING M/C BOOSTER PRESS 유압 4주식 프레스 C형 고속 유압 프레스

형번 HP-200,300,500,1000,2000kg 형번 HHP-1.5(TON) 형번 HAR-3.5,10(기) 형번 HBP-3.5,10,20,30(TON) 형번 HAP-5,10,15,20,30,50(TON) 형번 HPP-5,10,15,20,30,50(TON)

주 현대기전
Home Page: <http://www.hdpress.com>
E-mail: hdpress@hdpress.com

경기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28-1 정우벤처타운 2차 416호
TEL: (031) 494-7495-7
FAX: (031) 494-9466

본사/공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404-25
TEL: (053) 588-4011-5
FAX: (053) 584-3102

대표이사 **안준목** 40회

동창회관 건립기금 경과보고

▶ 2006년 9월 29일 동창회관 건립기금 모금 결의
▶ 2007년 3월 16일 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결성
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의 당초 목표인 1,500,000,000은 2013년까지 반드시 달성하여 동창회관 건립을 완성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이만석 동창회장이 5천 만원을 쾌적하셔서 2012년 6월현재 누적 금액이 1,378,500,000원 입니다. 동창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목표액을 보다 일찍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

동창회장	이만석
9대동창회장	박영희
10대동창회장	배만현
11대동창회장	곽성근
부회장	이동건
부회장	김달희
사무총장	채중해
이사	채학수
이사	임대우

동기회별 건립기금 납부 현황 2011. 11. 31일 현재

졸업회수	금액	졸업회수	금액	졸업회수	금액
25	1,000,000	39	30,000,000	51	30,000,000
26	1,000,000	40	*10,000,000	52	30,000,000
청송동창회	500,000	41	35,000,000	53	30,000,000
울산동창회	3,000,000	42	30,300,000	54	*10,000,000
28	1,000,000	43	*10,000,000	55	30,000,000
30	10,000,000	44	30,000,000	56	*10,000,000
31	4,000,000	45	30,000,000	57	*20,000,000
33	1,000,000	46	30,000,000	58	*10,000,000
35	1,500,000	47	30,000,000	59	10,000,000
36	3,000,000	48	30,000,000	66	1,000,000
37	20,100,000	49	30,000,000		
38	43,000,000	50	10,000,000		

동창회관 건립기금 납부계좌
대구은행 062-10-005707 대륜동창회

*동기회별 약정금액은 3천만원 입니다.
* 50회는 잔대구장 조성기금 2억 5천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대륜고, 자사고 제치고...

지난해 치러진 2012학년 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상위 100위권 고교 중에 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중에서 상위 100위권에 포함된 학교는 대구 경신고, 서울 은광여고, 대구 정화여고, 서울 숙명여고, 대구 대륜고 등 5곳 뿐이었다.

대구시 수성구의 일반계 사립고인 대륜고는 지난해 15명에 이어 올해 22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다. 연세대에는 12명, 고려대에는 20명이 들어갔다.

외고 등 특목고 강세 속에서 대륜고가 훌륭한 대입 성적을 거두는 이유는 학교의 열띤 학습 분위기와 학생들의 높은 성취동기를 또 다른 비결로 꼽는다. 대륜고는 2학년 중 성적 우수학생 70명을 뽑아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청와대·국회를 견학시킨다. 또 동창회는 연간 2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임운형교장은 "학생들의 두발·복장 등 생활지도도 강화해 제대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게 주요했다" 또, "학생·교사 간 원활한 소통, 일대일 맞춤 학습, 상담에 차별화 된 진학지도도 한 몫 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사 간 신뢰 관계가 돈독하며 제자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겠다는 교사의 열정과 이를 받아들여 따르



는 학생들의 믿음과 학생 개인별 성적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학습상담도 학력신장의 배경이다.

담임교사를 대학별 전형 분석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개개인별 수도권 주요대학 및 지방 국립대를 1곳씩 맡아 전형요강 등을 집중 연구·분석하도록 했다. 담임교사들은 각자 맡은 바 대학의 달라진 입시요강은 물론 특징에 따른 유리한 입시전략까지 분석해 원하는 학생에게 조언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육정운 교감은 "교사의 열정, 특색 있는 교육과정, 맞춤형 진학지도 등 3박자를 고루 갖춘 데다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주요일간지 기사발췌>

MAX Communication
 기업홍보 및 광고, 공연 전시홍보 프로그램
 예술관련 출판물, 사외보, 상업사진
 대표 성병철 65회 T. 053_252_8447

대륜고등학교 축구부

- 2011 대구,경북 권역 주말리그 1위
- 2011 제13회 백운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광양) 준우승
- 2012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고교축구대회 3위
- 2012 대구,경북 권역 주말리그 (3월~10월) 전체 16라운드 중 12라운드 종료된 현재 10승 2패로 단독1위



이상 저희 축구부의 2011, 2012년 성적입니다.

좋은 팀을 만들고 좋은 선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양질의 선수를 스카웃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까지는 재경체육후원회 손일수 회장님을 위시해 회원선배님들께서 도와주심에 스카웃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기의 침체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인 지금은 스카웃에 대한 지원금이 없어 우수선수를 데리고 오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축구부가 사용하는 팀 버스는 우리학교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용중인 버스는 1996년식으로 외관상 많이 낡아있으며 워낙 노후되다보니 선수들의 안전이 걱정될 정도로 잔고장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운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동문의 일원으로서 동문들의 결속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애써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축구부 감독 전상식 (65회)

대구시의원 오철환(50회) 소설 5집 "검은옷을 입은 여자" 출간!! 전국서점 절찬리 판매중!!

6월 25일 전철환(48회)제일모직 전무이사 중고등 축구부에 트레이닝복 100여벌 기증

메디엠 대표 은동렬 (58회) 의료용 소모품 도매전문 053-252-296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206 - 중 - 25964호 www.bogang.co.kr www.대구보강병원.한국

척추·관절 치료 역시!!

1994년부터 지역민들의 척추·관절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 온 보강병원에서 믿음과 성실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척추분야 전국3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주요 수술지도평가 (2006)

병원장 지용철(42회)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9:00 ~ 오후 5:30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1:00 (일요일 및 공휴일 휴진)

진료내용 | 신경외과 디스크 수술 척추외상치료 척추종양수술 만성요통치료 척추골다공증치료
 정형외과 퇴행성 관절염 관절경수술 인공관절수술 골절치료
 재활의학과 수술후 재활치료 통증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마취통증의학과 급성·만성통증질환의 진단과 치료
 내과 내과 위(수면)의사진정제내시경 대장(수면)의사하진정제내시경 당뇨병/갑상선/간클리닉
 골다공증 초음파검사
 영상의학과 척추질환 조기검진

의료법인 보강병원 BOGANG HOSPITAL 문의 053-641-92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511-10 (월배시장 옆/진천역 3번 출구)

초경합금 TUNGSTEN CARBIDE

대경아금 DKA TUNGSTEC
 한국기계연구소 선정 유망중소기업

대표 제갈 갑 (4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04-4
 TEL. 053-582-7655~7 / FAX. 053-582-7658 / HP. 010-9809-0990

2012 장학금 전달식



"후배들 열심히 공부해라" 대륜고동창회 모교에 2억원 장학금 매년 동문들 십시일반 모금 전달, 장학금 수혜 학생 비율 6.7%

대륜동창회(회장 이만석)가 후배들을 위해 2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모교인 대륜고에 전달했다.

대륜동창회는 18일 모교를 찾아 장학금 2억1천300만원(수혜자 비율 6.7%)을 재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46회 졸업생인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특강도 했다.

장학금은 동창 출연금 9천700만원, 재경대륜장학재단(이사장 임관일) 4천400만원, 대륜동창체육후원회(회장 손일수) 3천만원, 본술장학재단 2천만원이 포함됐다.

대륜동창 장학금은 이미 조성된 기금의 이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동문들이 새로 모아 전달한다는 게 특색. 기수별 동기회, 뉴욕과 인도네시아 등 해외 각지에 설립된 재외 동창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임윤형 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동문들

이 성원을 보내주고 있어 '2012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종합평가'에서 대구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후배들에게 특강을 하고있는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연창(46회)

이만석 동창회장은 "장학금 출연에 참여하는 동문이 해마다 늘고 있어 학교발전과 재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일간지 기사발췌>

특별기고 관심과 사랑, 이것이 보약이다.

경상북도 교육감 이영우(37회)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이자 교육 강국이며 우리 선수들이 전세계에 스포츠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룬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요사이의 공교육에 대한 믿음은 옛날과 같지 않고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열을 자랑하면서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의 부담은 우리의 살림살이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자율과 경쟁 체제를 교육계에 도입하여 창의력과 인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단순히 실적 올리기와 성적 위주의 교육 행정이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교권도 차츰차츰 무너져가고 학생과 학부모도 옛날과 같지 않고, 세상과 교육 환경은 고속으로 변하는데 교육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만들었다고 한다. 모두가 맞는 말이다.

학생들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천사의 놀이터 같던 희망의 동산인 학교가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아픔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교육계가 책임을 외면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요사이 청소년들이 하느님이 주신 하나뿐인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모든 곳에 문제가 있어 원인을 진단했다면 그에 대한 처방전도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무엇일까? 뭐 거창한 담론이나 복잡한 이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극히 상식적이며 평범한 대답이 있다. 바로 관심과 사랑이다. 채소밭의 무와 배추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한다. 정치에도 국민과의 소통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하지 않은가.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기본이 환자와의 대화가 기본이고 치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청소년의 문제에 귀기울여들어보자. 아픈 곳이 어디인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관심과 사랑으로 대화를 하자.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문도 하고 싶다.

야생화 같은 청소년의 모습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야생화는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꽃을 피운다. 그러니 그 향기가 독특하고 생명력이 길다. 야생화 같은 향기, 이것이 바로 개성 있게 자라는 청소년의 모습이다. 산나물 맛이 특이한 것은 무엇 때문이며, 산더덕의 향기가 발 더덕 보다 짙은 것도 무엇 때문이며, 산삼과 인삼의 약효의 차이는 어떠한가? 이 모두가 평소에 비바람을 이겨내고 밤이면 찬이슬을 맞고, 극심한 가뭄에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서 말라죽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온 생명을 다 해 투쟁하면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독특한 맛과 진한 향기와 신비로운 약효를 만들어 내지 않았는가. 우리 청소년들도 이와 같이 자라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키워야 한다. 그래서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 가서 가스과 기름을 캘 수 있어야 하고, 열사의 땅 중동에 가서 건설의 역군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잡초 같은 삶은 어떻게?

잡초라는 용어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잡초의 강인한 생명력을 닮아야 한다. 아무리 밟고 밟고 개어도 다시 살아나는 끈질긴 잡초의 모습은 나약한 오늘의 청소년과는 너무나 다르다. 체격만 커다란 힘없는 거인이 아니고, 마라톤 선수 같은 지구력과 농구 선수 같은 순발력과 레슬링 선수 같은 강인함이 필요하다.

잡초 같은 생활은 훗날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을지도 모를 역경을 헤쳐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암울했던 정치사에서 보던 야당 투사 같은 기질도 필요하다.

인간에 야성이 없으면 무슨 매력이 있겠는가? 어디가도 기죽지 않고 당당한 모습의 인격체로 성장해야 한다. 가진 자 앞에서 초라해하지 말고,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하게 자라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포레 집단 속에서 싸워도 보고, 맞아도 보고, 때로는 격투기도 해보고, 야영과 캠핑을 통해 동료의 소중한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여름 방학이면 돈 몇 푼을 가지고 야영을 떠나 새카맣게 그슬고 눈이 속 들어갈 정도로 고생도 하고 배가 고파서 허덕이면서 참아 보는 끈기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1997년 IMF는 한국 경제를 튼튼하게 만든 예방주사의 효과가 있어 우리 경제가 오늘의 경쟁력을 갖추어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요사이 제기되는 어려운 교육 문제가 인재 대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Kunil Engineering co., Ltd.

창조와 도전의 역사에 建一 이 함께 합니다.



KUNIL (주)전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손일수(47회)
항만 및 해압기술사 / 공학박사

포항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634-1 / 전화 : 054) 284-0195 FAX : 054) 284-0196
서울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번지 건일빌딩 / 전화 : 02) 3420-8888 FAX : 539-6690
http://www.kunileng.co.kr E-MAIL : KUNE@KUNILENG@CO.KR

“모든 일은 동시에 힘을 모을 때 그것이 완성”



임운형
대륜고등학교장

《동창회보》가 발간되기까지 온갖 수고를 감내하신 이만석 동창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위로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모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늘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동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모교는, 동문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후배들을 지도한 결과 일취월장(日就月將)하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성과를 말씀 드리자면..... 첫째, 2012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22명으로 특목고 포함 대구1위 달성, 둘째, 2012수능 대구 자연계 전체 수석 및 차석 배출, 셋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수능 최우수학교' 선정, 넷째, 2011 전국 일반계고 종합평가 대구1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은 동문님들의 격려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기업 CEO들이 꼽고 있는 「불황대처법」 1위의 사자성어는 “줄탁동시(倅啄同時)”라고 합니다. 달걀 속에서 부화되는 병

아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데 달걀 껍질은 단단하기만 합니다. 병아리는 나름대로 공략 부위를 정해 온힘을 다해 쪼기 시작하지만 병아리로서는 힘이 많이 부칩니다. 이 때 귀를 세우고 그 소리를 기다려온 어미 닭은 정확하게 그 부위를 알아차리고 밖에서 힘차게 쪼아줍니다. 그러자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 사투를 벌이던 병아리는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것을 ‘줄(倅)’이라고 하고,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하는 것을 ‘탁(啄)’이라고 합니다.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혼자라도 무지 온전하게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일은 동시에 힘을 모을 때 그것이 완성되고 위대한 새 생명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부부(夫婦)가 줄탁동시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사제(師弟)가 줄탁동시해야 훌륭한 인재가 탄생하며, 노사(勞使)가 줄탁동시해야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지금까지 모교는 대륜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줄탁동시’해 왔기에 오늘날 명문사학, ‘명품 대륜’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전 동문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 ‘줄탁동시’하는 마음으로 더 큰 관심과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다면 한층 더 도약하는 모교 대륜이 될 것입니다.

대륜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의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때”



서영목
대륜중학교장

대륜이 개교한 지 91년이란 긴 세월만큼이나 그 속에 녹아 있는 대륜 인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기질과 바탕으로 좋은 전통과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대륜의 혼은 곧 민족의 혼입니다. 이러한 혼은 대륜인들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며,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대륜 출신들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는 양심과 사랑을 실천한다는 교훈의 정신으로 사회 정의 실현과 발전에 앞장 서 왔다고 자부합니다.

만춘 동산에서 터전을 잡은 지도 어언 스물네 번째 해를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 대륜은 도약의 단계를 넘어 명문 대륜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대륜 가족 모두가 혼연 일체가 되어 대륜의 혼을 승화 시킨 필연적인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 기반의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 기반 사회는 지식과 창의력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국가 경쟁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는 교육력 제고가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교육 개혁을 위해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륜 교육도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만 비상하는 대륜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자는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編)에서 “온고지신(溫故知新)해야 선생이 될 자격이 있다” 고 했듯이 21세기 인간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를 좀 더 음미해 보면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답(故)을 폭 삶아서(溫) 그 답이 나오게 되면 문제를 깨닫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답(新)을 알아내는(知) 것을 의미합니다. 창의성 교육의 기본방향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을 통해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창조는 무(無)에서 유(有)가 아니라 유(有)에서 또 다른 유(有)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륜 교육도 변화하는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선 민족사학이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륜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을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륜동창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 뜻이 대륜 가족 모두에게 전달되어 대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단이사장 이취임식



김의용(37) 제이엔엘 이사가 지난 3월 23일 학교법인 대륜교육재단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협성고, 단국대 경영학과, 롱아일랜드 대학을 나와 하와이언 항공, 제이오에이 아울렛 등에서 근무했다. 김 이사장은 “민족사학 대륜의 자긍심을 지켜나가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 취임 이사장 약력 ◆
- 1999년 단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 2003년 Long Island University Finance 전공
- 2003년~2004년 Hawaiian Airlines 근무
- 2007년~2009년 제이오에이 아울렛 공동대표
- 2011~현재 제이엔엘 이사
- ◆ 이임 이사장 약력 및 공적 ◆
- 김영진
- 1965년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72년 ~ 1983년 대륜교육재단 이사
- 1983년~2012년 대륜교육재단 제9대 이사장
- 1999년 12월 8일 사학육성공로상(봉황장, 사립중고법인협의회회장)
- 1988년 12월 만춘동교사로 신축이전
- 2001년 예능관 증축 준공
- 2004년 중학교 시청각실 증축 준공
- 2005년 강당 증축 준공
- 2006년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준공

세계적인 원적외선 방사 세라믹스 제조 및 유통업체 맥섬석GM을 만나면 대한민국 생명과학의 미래가 보입니다.

26년을 오직 맥섬석 하나로 바이오 산업 분야 국가 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맥섬석GM이 세계적인 원적외선 방사 세라믹스 제조 및 유통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맥섬석GM은 채광에서부터 생산, 연구 및 기술개발, 판매 및 물류까지 원스톱 생산시스템 및 유통망을 갖춘 녹색산업 그 자체입니다.

본사 야경



맥섬석GM(株)
代表理事 郭成根
39회 (명예회장)

맥섬석GM 사업분야

- 맥섬석 숙면침대 사업부
- 맥섬석 의료기 사업부
- 농협사료 사업부
- 맥섬석 GS식품(미솔트) 사업부
- 팔공산맥섬석유스호스텔(팔공산 숲속의 웨딩)



농협사료 납품중

겸손한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 (49회)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고령·성주·칠곡군 지역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하게 된 49기 이완영 의원입니다. 대륜동문가족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국회의원, 장관 등 사회 유명인사를 다수 배출해온 명문 대륜고교를 나온 것은 제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든든한 자산과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 있어서도 동문여러분의 덕택에 당선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동문들과 자주 만나 학교와 동문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륜동문가족 여러분! 항상 초심을 유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선을 축하합니다.



유승민 국회의원 (49회)

- 19대 국회의원(대구 동구을)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미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박사, 1983.9~1987.12)
- KD(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전)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전)
- 18대 국회의원(대구 동구을)
- 한나라당 최고위원(전)
-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전)
- 박근혜 대표 비서실장(전)
- 17대 국회 정무위원, 예결위원, 재경위원(전)
-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전)



홍지만 국회의원 (59회)

- 19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 現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2012 제 1회 새누리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 SBS 뉴스 앵커
- SBS 경제부, 사회부, 국제부 기자
-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 한나라당 대구 달서갑 당협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초빙교수
- 미국 듀크대학교 객원연구원
-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전)

특별기고 **신공항! 지방민의 미래요, 생존권이다.**

남부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 위원장 **강주열 (52회)**



오늘 날 세계 경제 체제는 국가간 경쟁에서 대도시 중심의 광역경제권 간 경쟁 체제로 변화하고,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 형성으로 동북아 광역경제권(Mega-city Region)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관문공항이 1개뿐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세계는 지금 신공항 건설을 통해 사람과 물류의 선점을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 비중도 항공 60%, 선박 40%로 갈수록 항공 화물의 비중이 높아져 가는 추세이며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06년부터 항공운송 자유화 협정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고 세계항공운송시장은 연평균 5~6%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식기반산업과 첨단 IT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경우 세계로 열린 국제공항은 지역내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수적 요소이며 산업화시대는 바다길, 지식정보화와 세계화시대는 하늘길이 지역경쟁력을 좌우한다.

또한 국가안보측면에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에서 보듯 국가 비상사태 시 인천공항은 굉장히 취약한 지점에 노출되어 있다. 국가 유사시 대체공항으로서도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영호남과 충청 일부를 포괄하는 남부권 신공항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이며, 생존권 문제다. 일년에 1조원에 달하는 남부권

의 항공물류비용을 비롯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낭비를 우리는 감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남부권 상생 그리고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0만 남부민이 함께 힘을 모아 신공항을 반드시 성취해 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가백년대계인 남부권 신공항이 새 정부의 국정주요정책으로 채택되고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정파와 이념을 떠나 모든 정당과 후보자에게 대선 공약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실질적이고 논리적인 활동을 통해 수도권에 반대 논리를 극복하는 등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 홍보와 시도민의 공감대형성에 지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가야 할 것이다.

이제 신공항 건설에 있어 더 이상 지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에 유불리를 떠나 2,000만 남부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치적 내외풍이 차단된 객관적 분석과 평가가 보장되는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며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이제 부산도 더 이상 가덕도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가백년대계가 달린 신공항 건설문제가 대의명분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지방이 세계로 세계가 지방으로 서로 얽힌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가 아닌가.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가 지방의 미래를 살피고 또 지켜줄지 우리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공항!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2천만 남부민의 미래요 생존권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Sam Chang Textile Co., Ltd.

PROFESSIONAL MANUFACTURER FOR TRICOT FABRIC
경편 제조 / 수출 전문 기업

- 생산품목**
- 스판벨벳
 - 투웨이(스포츠용 기능성 원단)
 - 아이스 벨벳
 - 海道사(스웨이드)
 - EF 벨보아

대표이사 회장 **이만석**
40회 (제 12대 동창회장)

- 대한핸드볼협회회장(역임)
- 핸드볼코리아조직위원장(현)
- 삼창화섬주식회사
- 삼창섬유공업사
- 강성기업주식회사
- 대일물류주식회사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2-1 강성빌딩 TEL 02-501-5001(대표전화) / FAX 02-6442-8611

천안공장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소우리 177-16 TEL 82-41-622-4283 / FAX 82-41-622-4284

재경동창회



재경동창회는 지난 5월 24일 팔레스호텔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서 자랑스런 대륜인상 수상자로는 ▶김종호(38회) 삼정 KPMG그룹 부회장과 ▶최의홍(44회)삼성벤처투자(주) 대표이사 수상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에는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임운형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내빈들을 모시고 재경동창체육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번 체육대회에서 장년부 종합 우승은 45회가, 청년부 종합우승은 57회가 차지하였다.

재대전동창회



재대전동창회(회장 김목호 42회)는 매년 연말 송연의 밤 행사를 비롯한 여러 행사를 통하여 대전충청지역 대륜동문들의 친목을 다지고 끈끈한 동문애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인연' 재상주대륜동문회



지난 2월에는 교직에 재직하는 '상륜회' 회원 두 분이 퇴임을 하였다. 박원상(43회)동문은 중등 교장으로 명예 퇴임하여 재직교의 전통으로 학생, 학부모, 동료 및 知인과 상륜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여환국(41회) 동문의 섹스폰 연주의 아름다운 선율속에 이루어져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또 서유택(44회)동문은 초등교사 명예퇴임으로 전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내에서 엄숙히 이루어졌으며, 3월 총회시에 선배 동문님의 축하 덕담과 꽃다발 증정이 있었다. 현재 상주에는 15명의 회원이 적극 활동하고 있고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재울산동창회



울산대륜 동창회는 2006년도 초에 각 기수모임의 활성화를 거쳐 2006년 11월22일 창립총회 겸 송년회 행사로 발족되었다. 수석고문으로 장광수동문님(33회)을 모시고 이정문동문(43회)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하고 부회장 10여명, 감사 2명을 선출하여 출범하였다. 또 노종규동문(49회)을 수석총무로 한 각기수회장이 동문총무를 맡아 총10명의 총무단으로 구성하였다. 창립총회에 참석인원은 136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그리고 재울산 대륜동창회는 12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가족과 함께하는 하계단체대회를 매년 6월경에 개최하고 있다. 재울 셋별 골프회가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카페 <http://cafe.daum.net/ulsandr>

재구미동창회



우리 재구미대륜동창회는 2011년 12월 23일 송년회바 행사에서 김성수 회장(51회)이 선출되어 신년교례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동창회의 기동역할을 하던 동문 정치인들과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지만 곧 '대륜인은 할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6월 8일 우리 동창회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청륜회(靑倫會)가 주최한 '재구미 동창회 정 나눔 가든 파티'에서 안타까움에서 더 큰 미래를 열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많은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별을 보고 별을 생각 하면 이성 중심의 인간에 가깝고 별을 보고 대륜을 떠올리면 감성중심의 대륜인'이라는 서로의 암묵적인 감성의 동질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재부산동창회



재부대륜 총동창회에서는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2012. 1. 17)에 이어 전체 정기이사회(4.20) 모임이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춘계체육대회 성격의 "2012재부대륜 셋별가족 한마당" 축제잔치가 동래구 사직여중 운동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됨으로서 재부대륜 동창회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큰 획을 긋는 의미있는 행사가 이루어졌다.

재창원동창회



재창원대륜동창회는 1983년 결성되어 현재 안병수회장(45회)을 중심으로 위로는 최동균(26회)동문과 아래로는 최영진(71회)동문과 더불어 정기총회와 분기별 모임, 각종 경조사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고 특히 두산그룹 부회장이성희(42회)동문은 영전하여 서울로 가셨음에도 매년 정기총회에 참석하실 것을 약속할 만큼 결속력 있는 모임이라 자부하며 앞으로도 대륜인의 긍지로 모교의 우수한 후배들이 이 지역으로 올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륜셋별 동해지구에 떴다



동해지구동창회(회장/45회 박성관)는 1985년 6월 정인용(25회)초대회장을 중심으로 발족되어 포항,경주,영덕,울진에 이르는 400여명의 회원들이 셋별산악회(회장/49회 박영무)와 셋별테니스회(회장/51회 정정택)등 다양한 그룹활동과 매년 5월에 행해지는 야유회, 12월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친목을 끈끈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동문 발굴과 더불어 동창회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표 류 봉 현 (50회)
 급식위탁운영, 급식운영컨설팅, 배달급식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70-3번지
 전화 (053)782 8181 팩스 (053)743 2368

SBS 고교동창 골프대회



2009년 SBS에서 주최하는 '고교동창골프대회'에 선배님들과 출전하여 아쉽게도 32강전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동호회로 운영되고 있는 '셋별회'와 '대륜회'를 통해 이제는 한층 성숙된 모습으로, '대륜인'의 기상을 전 동문이 목청껏 불러볼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삼천리 골 곳에 셋별인 많은 동문님들의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죽령옛길을 걷다 _ 47회 동기회



대륜47회 동기들은 '매월 셋째 일요일에 전국의 명산과 계곡을 찾아 "통즉산행(通則山行)"이라, '통(通)함에는 산행(山行)이 최고다.'라며 산행한지도 벌써 10여년이 넘는다. 특히 5월~6월에는 전국에서 한 장소에 모여 가벼운 산행을 하고 지나간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야유회를 갖는다. 올해는 소백산자락의 '죽령옛길'을 모임 장소를 정했다. 47회의 멘토 이육연선생님께서 참석하셨고, 부부동반으로 100여명 참석하여 죽령옛길을 삼삼오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 정취 그윽한 길을 산보한 뒤 고갯마루의 죽령주막에서 동동주 한잔으로 목을 축이면서 하루를 보냈다.

박현준(47회)

청남대 야유회 _ 50회 동기회



50회 동기회는 6월 3일 청남대에서 단합대회 겸 야유회를 가졌다. 매년 6월이면 전국의 동기들이 한데 모여 정을 나누고 있다. 이날도 50여명의 동기들이 대구, 서울, 대전 등지에서 모였다. 또 매월 넷째 일요일 가까운 산을 택해 산행모임을 가지고 있고, 50회 재경동기회는 매월 1회 서울 주변 둘레길 걷기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건강증진, 우정돈독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삼계탕과 동동주 한잔 _ 53회 동기회



53회 동기회는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정기산행을 한다. 6월 17일에는 주왕산 산행을 마치고 달기약수터에서 삼계탕과 동동주 한잔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7월 15일에는 여름특집 래프팅이 예정되어 있어 동기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해 본다. 다음카페 <http://cafe.daum.net/dr29i>

48회 동기회



48회는 2012년 4월 부산에서 산악회원들과 등산을 하고 5월 15일 스승의 날에는 이병기선생님 부부를 모시고 스승의 은혜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동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6월 17일 동기회 단합대회는 칠포해수욕장에서 많은 동기들이 모였으며 족구 행사 등 즐거운 때를 보냈다.

백제문화탐방! _ 49회 동기회



매년 5월마다 개최하는 야유회를 올해는 부여에서 집결하여 백제문화탐방행사로 진행하여 대구와 서울 등 전국에서 전체 64명이 참가하였다. 첫 번째 행선지는 궁남지로 백제 말기에 왕궁의 남쪽 별궁에 만든 연못이며, 두 번째 행선지는 정림사지와 오층석탑으로 이 오층석탑은 우리나라 최초의 석탑이라는 문화해설사의 해설과 박물관을 둘러본 후 마지막 행선지 부소산성은 삼천궁녀의 전설인 낙화암, 고란사의 약수, 백마강의 유람선으로 백제문화탐방을 마쳤다.

한영FD 대표 채종해(47회)
원단크리스주름가공 053-585-7572

68회 동기회 확대

전국 각지에서 땀 흘리고 있는 옛친구들의 만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92년 대륜고에 입학했던 친구들의 안부가 궁금하거나 본인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동기는 아래의 카페나 동기회장(오기원, 010-4505-1486)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동기회카페 <http://cafe.daum.net/DREAM44>

친선골프대회 _ 60회 동기회



제4회 60회 동기친선 골프대회가 지난4월 재경동기회(회장 이현동)주관으로 용인 블루원C.C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인원 26명에 최저타 전민구(77타) /우승 정해성(신페리오방식) 동기들의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후배들의 멘토 _ 66회 동기회

2009년 이종우(총무 강홍중)회장과 뜻있는 동기들의 열정으로 결성된 동기회는 대륜66회의 초석이 되었다.

2012년 새로 출범한 2대 회장단(정병철-로제피부과)은 동기들의 우정과 동창회의 중추적인 역할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다. 무엇보다 후배들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선배로 살아가는 동기들이 되고자 정병철 회장은 강조한다.

동기회카페 <http://cafe.naver.com/dr6642.cafe>

각종 상패 및 판촉물
박상봉(55회) 010-9460-2878

동문동정

- ▶ 정대형(41회) 파미힐스CC 대표이사 취임
- ▶ 강재형(45회) 대구시의회 환경건설위원회장 당선
- ▶ 김경수(45회) 국시왕 개업(시지 고산지구)
- ▶ 이수열(47회) 대구 범물중학교 교장 부임
- ▶ 이종덕(47회)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취임
- ▶ 윤원보(48회) 보광섬유 대구스타기업에 선정.
- ▶ 48회 동기회 재경대륜동창회 신년교례회 주최(2012. 1. 6)
- ▶ 민일근(49회) 현대 보르네오 가구 사장으로 취임
- ▶ 최진석(50회) STX솔라 사장으로 취임
- ▶ 노영규(50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으로 취임
- ▶ 박진형(50회) 코트라상임이사 중국지역본부장으로 부임
- ▶ 정상철(50회) 롯데제과 마케팅본부장으로 부임
- ▶ 이철성(50회) 한전에천지사장부임
- ▶ 이삼호(50회)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 부사장 취임
- ▶ 오빈영(50회) 하나대투증권 강남본부장(전무) 취임
- ▶ 김종호(50회) 대구 칠성고등학교 교감
- ▶ 우성훈(50회) 대구 청구고등학교 교감
- ▶ 강황구(50회) 경북예술고등학교 교감
- ▶ 지기룡(50회) 경산 삼성현중 교감
- ▶ 강호인(50회) 조달청장 취임
- ▶ 이종태(50회) 한국카셰어링협회회장 취임
- ▶ 박세연(50회) 승주CC대표이사 취임
- ▶ 최동해(50회) 경찰청 기획 조정관 부임
- ▶ 김원구(51회)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장 선출
- ▶ 이상정(53회) (주)중국대사관 주재관(경찰청경무관)
- ▶ 김정동(53회) 대륜중학교 교감
- ▶ 이근호(53회) 시지고등학교 교감
- ▶ 전병석(53회) 중국 청진 한국국제학교 교감
- ▶ 윤여선(53회) 대구교육정보원 교육학습지원부장(교장급)
- ▶ 박종하(53회) 경북도청 사무관 승진
- ▶ 고진호(53회) 대구시 사무관 승진
- ▶ 최호철(55회) 초이스피부비뇨기과 개원
- ▶ 이영수(58회) 김치제조 "다홍식품" 개업
- ▶ 서영우(58회) 내당동 중화요리전문점 "두운" 오픈
- ▶ 장우석(58회) 경대 정문 커피 전문점 "코나" 오픈
- ▶ 성판용(58회) (주)TSK WATER 상무이사 승진
- ▶ 조용성(58회) 외환은행 영국지점에서 분사 복귀
- ▶ 나찬기(58회) 서울 중앙지검 부장검사 발령 예정(7월)
- ▶ 황병준(59회) 2012 그레미 최고녹음기술상 수상

2044 사랑방 誕生을 申告 합니다.

大倫人이면 누구나 卒業 20주년 “은사의 밤” 행사를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인 30대 말반의 혹은 불혹의 나이에 모교를 떠난 지 처음으로 행사를 갖는다. 까까머리에서 삼지 사랑방으로 헤어져 오랜만에 친구들의 변모된 모습도 보고 하늘같은 은사님들을 모신다는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삼삼오오 철없이 모인다.

그러나 20주년 행사가 끝나면 樣相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던 건설업계에 종사했던 K군이 폐업으로 세상을 떠났다. 분명 20주년 기념사진에는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처음 당하니 꿈인가 생시인가 생각했다.

公式 行事같은 홈 컴밍데이 30주년이 지나면 狀況은 인생살이와 같이 急變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싶다. 오랜 총무로 동기회에 獻身해준 H군, 회장으로 奉仕해준 성형외과 K군과 박스 사업가 S군, 토목하던 부산의 P군 포함의 O선생, 학원가의 國語古文 ‘가시리’등을 줄줄 외며 인기를 한창 날리던 P군, 공군에 새벽밥 먹고 가서 旗手가 제법 빠른 대전의 S군, 사진작가로 또한 皮革의 專門家로 筆者의 결혼기념촬영을 해준 Y군, 그리고 육사출신 J군 해사출신 S군, 공사출신 H군 등이 줄을 잇고 최근 山隊長을 맡았던 P교장의 갑작스러운 떠남은 동기 모두가 믿기 어려웠다.

짧은 인생이 너무나 아쉬워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졸업 40주년 행사를 일부 동기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된 主要背景이다. 다행히 너무 협조를 많이 해 준 덕분에

돈이 남아 생긴 副産物(?)이 바로 2044사랑방이다. 回甲記念으로 탄생한 作品이 사랑방이라지만 塡수가 작다고 고통 없이 쉽게 탄생된 것은 결코 아니다.

첫째, 사랑방 開設 자체의 贊反의 意見이다. 둘째, 場所選定이 무척 까다로웠다는 점이다. 전철1,2호선 勘案은 필수기본이요, 주차장 및 뒷골목 식당등도 風水地理說에 일조



좌로부터 사랑방방장 박덕현, 회장 손우현, 총무 강경현, 수석부회장 최말식

하니 立地選定이 어려운 건 당연지사다. 셋째, 사람의 趣味는 千態萬象이며 무척多樣하다는 점이다. 누구든 한쪽에 置重하는 偏頗性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일부 동기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안하면 몰라도 언젠가 할 것이라면 지금 하자는 현 손우현회장의 강인한 리더십으로 사랑방은 낙태 되지 않고 5월 21일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勿論 초대 J회장, 體育大會 主管 K회장, 40

주년 행사를 잘 이끌어 주신 P회장을 비롯하여 歷代 會長團 모두와 묵묵히 도와준 동기생 모두의 德임을 否認 할 수 없다.

告祀 및 懸板式 당일에는 많은 祝賀와 參席은 물론 전국에서 분에 넘치게 화분이 많이 왔고 동기들이 벽시계, 액자, 커피세트 등을 들고 와서 1차 진한 감동을 주었다. 그 뒷날 청도로 歸農해 열심히 살고있는 왕년의 공군 관

거듭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둘째 全國에 散在된 동기들 총 연락처는 물론 中38회 및 사정상 중도에 下車한 친구들도 包容 할 준비를 한다. 셋째 中國 등 外國紀行, 제주 및 흑산도 등 國內紀行, 산행, 자전거, 레프팅 등 趣味生活計劃 및 實踐, 國樂同好會, 배드민턴 동호회, 스포츠댄스 동호회 등 소모임 구성 등을 할 것이다. 넷째 삼립이사출신 K군의 노총각, 노처녀 救濟策으로 우리끼리 사돈 맺기 및 推薦運動등의 의견도 많은 共感帶를 형성했다. 다섯째 退職 後의 餘暇善用 情報交換 討論實踐, 禮學 禮節特講 등 무척이나 다양하다.

아직은 때가 묻지 않고 틀 또한 잡혀져 있지 않지만 完璧하지 못하고 조금의 틈이 있더라도 그것이 더 人間美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인생의 가장 黃金時節의 追憶을 共有하고 있는 高校同期들과 卒業50주년도, 아니 60주년도 같이 하고 싶다. 먼저 간 동기들의 삶도 대신 포함해서 말이다. 벽에 걸린 어느 친구가 보내준 健康10訓과 더불어 “자기를 잊으면 찾을 수 있고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 받기보다는 이해하고”의 精神과 마음으로... 즐겁고 신나게 좋은 대화하고 같이 맛있는 것 먹어 생각하니 절로 軍침이 돌고 신명이 난다.

후배들에게 배울 점 있고 龜鑑이 되는 사랑방을 運營 해 보고 싶다. 뒷짐 지고 觀望 하는 삶 보다는 원안에서 풀고 反省하고 남을 配慮하는 배풀시(施)의 참뜻을 우리 44회 동기뿐 아니라 全 大倫人이 가졌으면 하고 바라면서 두서없는 글 맺는다.

제탑 J상사의 직접 농사지는 쌀1두와 양파 선물은 모두의 窶간들을 疇하게하는 감동의 드라마 그 자체였다. 훗날 알고 보니 얼마 전 우박사태 때 피해가 엄청 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기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섰으니 이것이 軍자의 마음이 아니더냐?

모든 組織과 모임에는 目標과 指針이 있듯이 2044사랑방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가 있다.

첫째 對話와 畚터의 空間은 基本이다. 더 나아가 동기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사랑방으로



人和團結 . 成實施工 . 創意啓發

 成浩建設株式會社

본사 :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296-1
지사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13-4
TEL.053-755-7979 FAX.053-756-5959



대표 배인호(48회)



열경요양병원

YEOLGYEONG HOSPITAL

- 치매 중풍 재활 요양
- 양·한방 협의진료
- 도심속의 산책로
- 24시간 간병





원장 허진영(50회)

대표전화 980-9800 입원상담 980-9826

찾아오시는 길 동촌 홈플러스 맞은편, 지하철 1호선 해안역 도보2분 거리

특별기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기적 진실'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대현(50회)



거친 언어가 난무하는 시대다. 욕설만이 아니다. 천박한 쌍말에,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악의적 표현에 거침이 없다. 지우고하, 남녀노소 불문이다. '통일의 꽃'이란 거창한 별명을 가진 한 여성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탈북자들을 향해 "개새끼" "배신자"라고 했고, 야당 대표가 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에 대해 말한 여당의 유력대선후보를 향해 "악질적"이라고 공격했다. 한때 한술밥을 먹은 MBC 김재철 사장에게 "금치산자 정신상태, 연쇄살인범"이라고 말한 앵커출신 국회의원도 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란 말이 공허하다.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서로의 생각도 다를 수 있다. 상대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표현이다.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막말을 하는 사람은 생각도 거칠다. 자

기만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 더 한심한 것은 그 독선조차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진실이 하나가 아니다. 논리적으로 옳아서가 아니라, 그냥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믿기로 하면 진실이 된다. 거짓이나 음모라도 상관없다.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인다. 명백한 객관적 사실도 자기 믿음에 맞춰 이해하고 해석하는 '편향동화'에 빠진다. 엉뚱하고 조작된 정보로 판단을 내리면서 스스로는 중립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착각한다. 언론학자인 파하드 만주가 말하는 '이기적 진실'이다.

'이기적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2005년 미국 코미디언 스티븐 콜베어가 자기 프로에서 처음 말한, 사실이라는 증거 없이도 진실이라고 느끼는 '진실스러움(truthiness)'일 뿐이다. 멀리 미국 9·11테러 음모설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다. 광우병 파동이나 천안함 조작설이 있다. 파하드 만주는 "진실스러움은 선택을 의미한다"고 했다. 단순히 하나를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행위

라는 것이다. 진실스러움에 빠진 사람은 머리(이성)가 아닌 가슴(감정)을 따른다. 감정은 뜨겁고 자극적이어서 서로 통하면 통할 수록 위력이 커진다. 설령 그것이 거짓이나 조작으로 드러나더라도 나만 계속 그렇게 믿으면 진실이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다. '아니면 말고'다.

이기적 진실의 으뜸 공신은 이념도 아니고, 계급갈등도 아니다. 인터넷이다. 클릭 한번이면 온갖 쓰레기정보까지 마구 쏟아져 나오는 세상에서 진실이라고 믿는, 믿고 싶은 것만 골라 읽고, 보고, 퍼뜨리면 된다. 꼭 컴퓨터를 켜지 않아도 된다. 스마트폰만 켜면 언제 어디서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있다. 생각하거나, 기억할 필요도 없다. 굳이 힘들게 시간 들여가며 책을 읽을 이유도 없다. 검색어 하나만 치면 된다. 손으로 쓸 필요 없이 커서로 '쑈~' 옮겨 담으면 끝이다. 그렇게 얻은 정보, 이기적 진실로 똑똑해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오히려 지식 결합과 객관적 판단기능, 독서가 주는 선행적 사고까지 잃어버린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다.

미국 미래학자 니콜라스 카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인터넷(컴퓨터)이 기억하

고, 집중하고, 사색하고, 비판하는 인간의 '생각하는 법'을 앗아갔다고 비판한다.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당신은 몇 개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가. 네비게이션을 장착한 후, 당신은 한번 가본 길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이 뿐만이 아니다. 댓글과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140자 단문으로 끝나는 트위터의 무형식과 즉각성은 언어의 품위는 물론 글쓰기의 표현력과 수사법까지 잊게 만들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눈은 좁아졌고, 그나마 좁아진 눈으로 한쪽만 보고 있다.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고 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적'으로 간주해 악의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마녀사냥,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소통과 화합은 말로만 존재한다. 진실은 늘 둘이니까. 진실은 늘 둘이 된다. 오늘도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심지어 걸어가면서 옆에 아홉은 마치 마술에라도 걸린 듯 스마트폰으로 혼자서 눈과 귀를 가리고 열심히 문자하고, 통화하고, 영상물 보고, 게임만 한다. 오로지 나만의 진실에 빠져서는 생각도 하지 않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으로 변해가는 있는 것 같아 섬뜩하다.

건강상식 임플란트

요즘 임플란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온다. 가격 및 수명, 다른 보철물과 비교시의 장단점 등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치 보존이 어느 치료보다 우선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임플란트는 뼈 속에 매식체를 심어 매식체와 뼈가 단단히 붙는 기간이 지난 후, 상부 구조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씹는 힘이 자연 치아와 유사하고, 흔들림도 없다.

임플란트의 10년 성공률은 위턱과 아래턱에 따라 각각 90%와 95% 이상이라고 학계에 보고돼 있다.

임플란트의 실패는 뼈와의 결합이 실패하는 것인데, 잘 붙었던 임플란트에서도 간혹 씹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붙었던 뼈가 떨어질 때가 있다. 자연치의 풍치질환처럼 염증이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서 일어나 주위 뼈가 녹는 경우도 있다. 임플란트는 수술 후 2주간의 위생관리가 장기적인 임플란트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환자가 수술 후 칫솔질 대신 입안을 약물로만 헹구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 염증이 잇몸뼈 손실을 급속하게 유발시키고 연조직 부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창상치유는 염증성단계, 섬유화 단계, 재형성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이 시기에 임플란트와 점막 사이에 세균막이 제거되지 않으면 염증성 단계와 섬유화 단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창상의 감

염도 일어난다. 수술 후 1~6일 동안에 걸쳐 염증성 단계가 진행되는데 이때 자연적 치유에 방해가 되는 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주로 세균과 이물질 등인데 구강 내에서는 세균막인 치태가 주로 창상 치유를 방해한다.

또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으므로 감각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계속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무리가 가해져 주변의 뼈가 녹아 없어진다. 따라서 3~6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임플란트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또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삼가는 게 좋다.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지는 않지만, 주변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과도한 염증으로 뼈까지 녹아내리면 임플란트가 흔들리고 후에는 빼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금연 또한 중요하다. 흡연은 확실히 밝혀진 임플란트 실패의 원인이다. 임플란트 시술 전부터 금연하는 것이 좋다. 담배를 피우면 금연보다 실패율이 2배나 높다.

무엇보다 환자 자신은 매일 구강청결을 위해 칫솔질과 치간 칫솔 또는 치실을 올바르게 사용해 청결히 관리하면 임플란트 치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임플란트 실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수술 후 보철물을 만들기 전까지와 사용한지 1년 이내로 알려져 있다.

손정익 예동M치과의원장 (59회)

건강상식 혈관을 건강하게, 몸을 건강하게...

심장혈관 및 뇌혈관질환의 급증은 개인의 삶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 특히 여성의 심장질환은 국내는 물론 선진국에선 남성 사망률을 앞서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인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혈관계에 발생하는 질환도 늘어나는 추세다. 보고된 통계에 따르면 혈관질환은 전체 사망 질환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혈관질환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혈관 질환은 주로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혈관계의 질환은 신체 각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환자의 평균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혈관계는 신체의 각 부위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이 상이 발생할 경우 각 장기에 치명적인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혈관의 건강이 신체의 건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혈관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주로 혈관의 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심장으로 가는 동맥(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뇌졸중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진다. 사지로 가는 혈관에 이상이 생기면 운동을 하거나 걸을 때 심각한 파행과 같은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있다. 이러한 질환은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나 기름기가 축적이 되어 내막

이 비후하게 되고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이 점차 진행되면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게 되고 혈류의 흐름이 방해받아 각 장기에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흡연은 혈관질환에 있어서 거의 독약과 같은 존재이며 상기 질환 중 고혈압과 당뇨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위험도가 낮아진다.

예전에는 혈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혈관에 직접 카테터를 넣어 조영제를 주입하여 영상을 얻는 혈관촬영술을 직접 시행하여야 되었으나 요즘은 CT와 MR을 이용하여 혈관 영상을 보다 안전하게 얻을 수 있다. 가슴통증이 있거나, 운동시 하지의 통증이 있다면 혈관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뇌졸중의 가족력이나 상기 위험인자가 두가지 이상인 50세 이상인 분들은 뇌혈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인자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지혈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금연, 운동을 통한 적정 몸무게 유지, 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혈관질환은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100세 시대를 위해 금연과 운동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박원규 서주미르영상의학과의원 원장 (60회)

손맛까지 보이는
국시왕의 수타생면

手打生麵

전문가들이 직접 반죽해서 바로 뽑아낸
국시왕의 생면은 격이 다른 맛과 식감을 자랑합니다.
쉽게 분지 않고 입안에서 탱글탱글 살아있는 면발로
여러분께 큰 기쁨을 선사하겠습니다!



대표 김경수 (45회)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366-4번지
예약문의 053-793-3200

대구 · 경북에서
최고가 되고자 라는
커피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귀한 분들과 함께 라는 소중한 자리...
언제나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한정식 大 慶 KOREAN TRADITIONAL RESTAURANT DAEKYUNG

대표 김경수 (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76-1
TEL : (053)761-3161, 010-3711-6015

상견례 · 돌 · 생일 · 회갑잔치 각종단체 모임환영

졸업 20주년 기념 은사의밤 2012. 10. 20(토)

주최 : 65회 동기회 [집행위원장 : 장근창 010-9016-9883] <http://cafe.daum.net/daeryun41>

후원금 모금계좌 : 대구은행 263-13-127430 김현수(수석총무)



대륜65회동기회

개교 91주년 제 35회 대륜동창체육대회

2012. 10. 21(일) 10:00 모교운동장



주최 : 대륜동창회 TEL. 053-751-0315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700
<http://www.daeryun.or.kr>

주관 : 59회 동기회 TEL. 053-762-3559
[집행위원장 : 권준혁 / 집행부위원장 : 손정익]
<http://cafe.daum.net/ddr35>

